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유학생·최고경영자 등 5만명 DB구축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

“인재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 헤드헌팅업체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대표 김성민·이하 제일컨설팅) 미국법인인 동포와 유학생 인재 5만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제일컨설팅이 확보한 인재군은 ▶매니지먼트 ▶마케팅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디자인 등 주요 직종을 총망라했으며 최고경영자(CEO) 급도 대거 포함돼 있다.

김성민 대표는 “과거에는 지상사 주재원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현지화 전략에 따라 동포와 유학생으로 대체하는 추세”라며 “주로 간부급 이상의 고급 인력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컨설팅은 지상사뿐 아니라 동포와 미국 기업, 그리고 한국 내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대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인재 교류도 활발하다”며 “앞으로 LA와 중국, 일본, 독일

등에도 법인을 설치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채용 정보 포털 사이트(www.Job-WorldUSA)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의 등록 회원은 1만여명에 이른다.

한편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에 사무실을 둔 제일컨설팅 미국법인은 2003년 설립됐으며 김대표가 법인장을 겸하고 있다. 이현상 기자